

투데이

광주 제2순환도로 분쟁 오늘 분수령

민간사업자, 市 자금제조달 원상회복 취소 청구 중앙행정심판위 심판 주목... 市, 기각엔 계약파기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면서 이른바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광주 제2순환도로 민간사업자 간 분쟁이 19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어서 '제2순환도로' 분쟁의 고비가 될 전망이다.

특히 광주시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민간사업자의 청구를 기각해 승소할 경우 제2순환도로 인수를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어서 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이 주목된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제2순환도로 1구간 민간사업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주)측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자금제조달 원상회복 명령 취

소 청구'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이 19일 열린다.

광주시는 민간사업자가 최소운영 수입보장 비율 협상에 응하지 않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지난해 10월 6.93%인 자본을 협약당사인 29.91%로 원상회복하라는 감독명령을 내렸다.

이는 사업시행자가 주주관청인 시의 동의없이 임의로 자본금을 감자한 뒤 후순위 차입금을 도입하고 주주차입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높은 이자의 자금을 조달하면서 관리업체의 자기 자본 전액을 잠식하는 등 적자운영을 심화시켜왔다는 분석 때문이다.

이에 대해 광주순환도로투자(주)

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협약서에 자본 구조를 변경할 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며 지난해 11월 감독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열리는 중앙행정심판위에서 민간사업자측의 주장이 인용될 경우 광주시는 자금제조달 원상회복 명령을 철회하고, 재심을 청구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민간사업자측의 청구가 기각될 경우 자금제조달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독명령을 불이행을 근거로 계약파기를 통보하는 등 계약파기의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광주순환도로투자(주)측에서 법적 소송을 낼 가능성이 높아 장기화될 수 있다.

광주시는 또, 협약해지가 이뤄질 경우 매입협상에도 들어갈 예정이나

만약 민간사업자 측의 주장이 인용될 경우에 대비해 제2순환도로 매입을 위한 또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문제가 된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은 민간투자자인 대우건설컨소시엄이 1997년부터 2000년까지 3년 동안 1816억원을 들여 개통했지만, 3년 뒤 백퀴리한국인프라투자자로 넘어갔다.

시는 2000년 12월 협약을 체결하면서 투자액의 9.34%의 수익률을 약속하고, 이를 위해 향후 28년 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비율 85%를 보장한다고 명문화했다.

하지만, 시는 통행량 예측을 잘못하고 수입보장을 약속한 탓에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1190억원의 재정보전금을 투입하면서 광주시의 재정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병원단체들 “의사협 수술 거부 반대”

병원단체들은 18일 대한의사협회가 포괄수가제 실시에 반대해 수술 거부 카드를 꺼내 들고 있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설립 의협이 수술 거부를 결정하더라도 의료현장에서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며, 의협이 실제 수술 거부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나춘근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제왕절개·백장 등 7개 질환의 수술에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것은 이미 결정된 상황이라 반대하기 어렵다”면서 “지난 10여년간 의원급 80% 정도가 시범사업 등으로 참여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7개 질환 이외 다른 질환 또는 상급종합병원 등으로 포괄수가제가 확대 적용되는 데 대해서는 견해를 밝혔다.



노환규(오른쪽)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8일 서울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부의 포괄수가제도 강행 논리 반박 기자회견'에서 의협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같은 시각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회원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의협회관 건물 앞에서 포괄수가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99개 전문병원원이 참여하는 한국전문병원협회 회장도 “수술 거부라는 극단적인 상황은 피해야 한다”며 “의사로서 의무를 포기하는 행동은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500여개 병원이 참여하는 대한중소병원협회 백성길 회장이 “수술 거부 하면 국민 여론이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남도 공무원 공제 사회복지 107명 등

전라남도는 18일 “사회복지 공무원 107명 등 총 116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회복지 공무원 신규 채용 규모는 총 107명으로 일반 95명, 저소득층 5명, 장애인 7명이다.

전남도는 또 일선 시군의 축산 방역인력 조기 확충을 위해 수의직 공무원 9명을 함께 채용한다.

응시자격은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전남도 내로 돼 있어야 하며(단 수의직은 광주 시 거주자 포함), 수의직(7급)은 20세 이상(199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사회복지직(9급)은 18세 이상(199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어야 한다.

응시 원서는 오는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

/오광록기자 kroh@

치타운 활성화 및 관광자원화 ▲김치의 명품 브랜드화 ▲김치 글로벌 산업화 ▲김치축제를 시민 주도형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올해 김치 경연대회는 김치산업진흥법에 근거한 전국 김치경연대회로 유치해 김치산업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

광주시 '김치산업 재도약' 전략 마련

광주시가 올해를 광주김치산업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본격적인 전략 마련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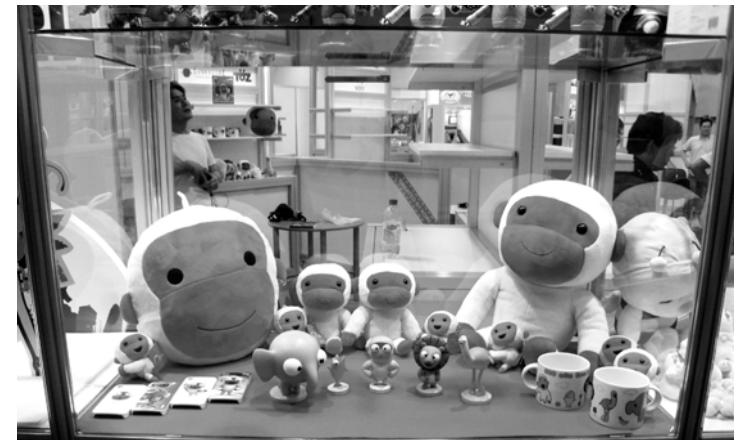
광주시는 18일 광주 김치타운에서 김

계두 경제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김치산업육성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 회의'를 가졌다.

이날 TF팀 회의에서는 ▲광주김

캐릭터 상품·어플 흥행 힘입어 시즌2 제작

광주 문화콘텐츠산업 선도업체 ③ (주)씨니사이드



광주지역 애니메이션 업체인 (주)씨니사이드가 제작한 3D 애니메이션 '아기고릴라 동동'의 캐릭터 상품들.

국내 및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잘란리에 방영중인 '아기 고릴라 동동'은 광주 문화콘텐츠 기획·창작 스튜디오인 (주)씨니사이드(대표 김이걸)의 대표작이다.

현재 완구·봉제인형 등 30여 종의 다양한 캐릭터 상품으로 출시될 정도로 '아기 고릴라 동동'의 인기는 폭발적이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10여개도 개발돼 현재 누적 다운로드 수가 200만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지난해 중국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해외 TV프로그램 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주)씨니사이드는 이러한 인기를 몰아 현재 '아기고릴라 동동' 시즌 2(1분 짜리 140편)를 제작중이다.

이 업체가 광주와 첫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 2008년, 아기고릴라 동동 프로젝트를 하던 팀들이 광주 문화진흥원의 소개로 프랑스에 있는 애니메이션 전문 배급사 A-WOL과 연결, '아기고릴라 동동' 시즌 1 글로벌 배급계약을 체결하면서부터다.

이후 2009년 광주시로부터 기획·창작스튜디오 제작 지원을 받으면서 회사를 창업했고, 시즌 1을 성공적으로 완성했다. 지금은 '아기고릴라 동동' 시즌 1의 성과와 작품성, 상품성을 알아본 국내 대기업의 투자로 '아기고릴라 동동' 시즌 2를 제작 중이다.

이와 함께, 동동 캐릭터의 국내·해외 등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

'아기 고릴라 동동' 20개국서 인기리 방영

고, 새로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고 있다. 하지만, 시즌 2 제작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대표는 “대기업 등에서 서울 본사 이전 제안을 받기도 했지만, 광주에서의 도움없이 지금의 성과를 거두기는 힘들었을 것이라는 고마움에 서울 본사 이전 제의를 물리쳤다”며 “광주에서 제대로 된 글로벌 캐릭터를 만들어 광주는 문화콘텐츠 중심도시로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씨니사이드는 앞으로도 '아기고릴라 동동' 시즌 3, 4 등 후속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제작할 계획이며, 새로운 기획도 병행해 광주를

대표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탄탄한 애니메이션 제작사로서의 포부를 계획하고 있다.

김 대표는 광주의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방향에 대해 “원천 캐릭터를 가진 회사가 광주에 3~4개만 되어도 전국에서 광주로 인재들이 모여들고 만화나 게임 등 다른 문화산업의 광주 기업들과도 공동개발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며 “다른 지역의 큰 문화콘텐츠 업체를 광주로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광주 토종 기업의 육성이 이뤄져야 광주의 문화콘텐츠 산업의 핵심인 뿌리가 튼튼해질 것”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세계불교CEO협회·불교영화제 창립

한국서 내년 첫 행사

세계불교CEO협회와 세계불교영화제가 창립됐다.

지난 11~16일 여수에서 열린 제26차 세계불교대회(WFB) 한국총회 참석자들은 세계불교CEO협회와 세계불교영화제를 각각 창립하기로 결의하고 첫 창립대회를 내년 한국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18일 이번 한국대회를 주관한 조지위에 따르면 불교 경제기업인간 국제 네트워크 결성을 통한 부처님

의 뜻에 따른 나눔과 봉사를 실현하기 위해 세계불교CEO협회를 결성기로 결의했다. 불교문화나 콘텐츠를 활용해 경제모델이나 수익모델을 개발, 건전한 불교재정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협회 창립인으로 유인화 전 의회, 팔름 타이러리 세계불교대회(WFB) 사무총장, 네팔 조티 그룹 파드마조티 회장, 인도네시아 카벨 리아 기업건설링 대표, 자가티자마티파라 스리랑카 마사회장 등 5명이 상임대표로 선임됐다. 사무총장은 영정호

WFB 한국대회 조직위 사무총장이 맡는다.

또 이번 창립을 선언한 세계불교영화제도 첫 대회는 내년 한국에서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영 사무총장은 “세계불교영화제는 이번 한국대회에서 처음 개최된 불교영화포럼에서 20여편의 불교영화 상영된 것이 기폭제가 됐다”며 “세계불교영화제는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불교CEO대회와 연동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동부취재본부=임문희기자 mtim@

수원시립교향악단

창단 30주년 기념

전국 순회 음악회

30th

Anniversary of
Suwon Philharmonic
Orchestra Concert
in Korea

2012년 6월 26일(화)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피아노 임동민

PROGRAM

글린카 M. Glinka	루슬란과 루드밀라 서곡 Russlan and Ludmilla Overture
쇼팽 F. Chopin	피아노 협주곡 제2번 f단조 Op.21 (피아노 : 임동민) Piano Concerto No.2 in f minor, Op.21
베토벤 L. v. Beethoven	교향곡 제5번 "운명" c단조 Op.67 Symphony No.5 in c minor, Op.67

수원시립교향악단 창단 30주년 기념 전국 순회 음악회 전체 일정

2012.04.26(목) 오후 7시 30분	• 제주아트센터
2012.05.25(금) 오후 7시 30분	• 대구 문화예술회관 팔공홀
2012.05.27(일) 오후 7시 30분	• 창원 성산아트홀 대공연장
2012.05.28(월) 오후 7시 30분	• 부산 문화회관 대극장

수원시립교향악단
음악감독 & 상임지휘자 김대진

주 최 수원시	티켓 VIP석 25,000원(CD 제공), R석 20,000원, S석 10,000원, A석 5,000원	2012.06.26(화) 오후 7시 30분
예매처 인터파크 1544-1555 www.interpark.com	문 의 02-780-5054	2012.06.27(수) 오후 7시 30분
		2012.07.07(토) 오후 7시 30분

10월 포함 예정